

유럽으로 간 유교의 근자론

[서평] 인토르체타 역주, 안재원 편역주(2020),
『인토르체타의 라틴어 중용』, 논형, 469쪽.

최 정 연*

문명사적 관점에서 중국 예수회의 저작에 오랫동안 천착한 서양 고전학자 안재원 교수가 최근에 비판 정본을 출간했다. 17세기 중후반 중국에서 활동한 예수회 선교사 인토르체타(P. Intorcetta, 중국명 殷鐸澤, 1625-1696)의 라틴어 『중용』 편역주가 그것이다. 이 책은 유럽인의 눈으로 중국 고전과 성리학을 이해한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서 문명교류 연구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다.

안재원 교수는 5년 전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된 필사본 6277을 입수하여 판독에 착수했다. 필사본 6277에는 중국 고전인 사서(四書) 중 『서문』과 『대학』, 『논어』, 『중용』이 실려 있다. 그의 손을 거쳐 편역된 이 자료의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철학자 공자』(*Confucius Sinarum Philosophus*)의 저본이라는 점이다. 『중국인 철학자 공자』는 1687년 예수회 선교사 쿠플레(P. Couplet, 중국명 相應理, 1622-1692)가 프랑스의 국왕 루이 14세에게

* 안양대학교 HK+사업단 연구교수

헌정한 저작으로, 중국과 유럽에서 표준화된 유교와 그리스도교의 사유체계가 거의 최초로 전면 대결한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것은 루이 14세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출판된 뒤 유럽 전역으로 유통되었고, 지식인 사이에 확산되었다.

『중국인 철학자 공자』는 『서문』, 『대학』, 『중용』, 『논어』 그리고 『중국 왕조의 연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모두 쿠플레의 저술로 알려져 왔다. 먼젤로의 『진기한 나라 중국』(*Curious Land Jesuit Accommodation and the Origins of Sinology*, 1989)와 메이나르가 편집한 영역본 『중국인 철학자 공자』(*Confucius Sinarum Philosophus*, 2012), 스탠다이어트의 『중국의 전례 논쟁에서 조명받지 못한 목소리들』(*Chinese Voices in the Rites Controversy*, 2012), 김혜경의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 역사와 의미』(2012) 모두 쿠플레본 『중국인 철학자 공자』에 기초하여 제출된 대표적 성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재원 교수의 비판 정보 작업 결과로, 서문을 구성하는 네 부분 가운데 제1부와 제2부의 저자는 인토르체타이고 『중용』 역시 6277을 저본으로 쿠플레 자신의 입장과 필요에 따라 편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국내외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필사본 6277을 판독하여 비판 정보를 만든 작업은,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포착하지 못한 『서문』의 주요 내용은 물론, 『중용』의 해석을 되살렸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 이상을 거두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세계 최초의 비판 정보이라는 점이다. 안재원 교수는 필사본 6277이 전하는 『중용』 원문을 검증하고, 쿠플레가 편집한 『중용』과 비교하는 비판장치를 달아 『인토르체타의 라틴어 중용』을 출간했다. 이 책은 서두에서 원문의 복원 과정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사실을 해제 형식으로 밝히고, 이어서 비판 정보와 번역을 소개한다. 페이지 상단에는 비판 정보를, 중간에는 한글 번역을, 하단에는 루지에리(M. Ruggieri, 중국명 羅明堅, 1543-1607)의 『중용』 라틴어 원문과 한문 원

문을 참조로 달아 두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는 6277의 정본 작업은 연구자들이 안전하게 인용할 수 있는 표준 텍스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작업 덕분에 관련 전공자는 물론 인접 전공자의 텍스트에 대한 접근이 한층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추후 이들에 의해 다양한 연계 연구 성과가 제출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6277의 복원을 통해 『중용』을 비롯하여 『중국인 철학자 공자』가 저술된 경위를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 복원된 기록에 근거해 추론해보면, 인토르체타가 『중용』을 번역하도록 추동한 계기는 두 가지 사건이다. 하나는 1665년의 역옥(曆獄)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리치 사후 반세기 동안 지속된 전례 논쟁이다.

복원된 기록에 따르면, 양광선(楊光先, 1597-1669)과 아담 샬(Johann Adam Schall von Bell, 중국명 湯若望, 1591-1666) 사이에 벌어진 1665년의 역법 소송으로 예수회 선교사 25명이 북경에서 광둥으로 축출된다. 인토르체타는 그의 동료들과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서의 번역을 기획하고 출판하는 일에 착수한다. 사서 가운데 『논어』의 일부와 『대학』은 코스타(Ignatius da Costa, 중국명 郭納爵, 1599-1666) 신부가 라틴어로 번역해 두고 세상을 떠난 관계로, 인토르체타는 남은 과제로서 『중용』을 번역하게 된다. 그는 1667년에 강소성에서 라틴어 『중용』의 초고를 출판하고, 중국을 떠나 유럽으로 항해하던 중 1669년 1월에 중 인도 고아에서 재판본을 간행한다.

한편 반세기 넘게 지속된 전례 논쟁에서 리치 노선을 고수한 예수회 선교사들은 보유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했고, 인토르체타도 보유론의 입장에서 전례 논쟁을 다룬 「보론」(補論) 8편을 저술한다. 「보론」은 6277의 『서문』에 있었지만, 쿠플레의 편집 과정에서 전부 삭제되었다. 그러나 6277의 『서문』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면서, 인토르체타의 라틴어 『중용』이 전례 논쟁에서 리치의 노선을 방어할 목적으로 번역

된 저작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넷째, 인토르체타가 『중용』을 라틴어로 번역하게 된 이유와 독자로 설정한 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는 쿠플레본의 기록에 근거해 『중국어 철학자 공자』가 동방 선교의 재정적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 루이 14세에게 헌정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6277의 필사 기록은 본래의 저술 목적과 헌정 대상이 달랐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토르체타가 『중용』을 번역한 근본적인 이유는 『중용』을 예수회의 보유론적 선교전략에 필요한 중요한 도구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서양의 형이상학과 세련된 유럽식 표현법, 그리고 복음이 유교를 정련하고 포장해줄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해,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서를 유럽인이 이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연히 이 책의 잠재적 독자는 루이 14세기 아닌 동방 선교의 지원을 희망하는 유럽의 젊은이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 쿠플레는 지워버렸지만 필사본 6277에는 남아있는 편지에서 그 구체적 내용이 확인된다.

이 책의 학술적 의의는 비판 정보 작업을 통해 복원된 내용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안재원 교수는 한 걸음 나아가 인토르체타의 독법을 밝히고, 번역된 개념과 주장이 유럽의 계몽사상의 발원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인토르체타는 서양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번역 전략으로 서양 고대 철학자의 개념과 해석 틀을 소환한다. 그 문헌적 증거를 몇 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誠의 번역어인 ‘perfectio’는 키케로의 ‘perfectum’에서 차용된 것으로 보인다.
- 2) 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부동의 원동자’(ὁ οὐ κινούμενον κινεῖ), 나아가 그리스도교의 ‘신’(theos)을 연상시킨다.
- 3) 中庸과 中和은 각각 키케로의 ‘officium perfectum’과 ‘officium

medium'과 상응된다.

- 4) 中庸은 스토아의 'officium'과 상응된다.
- 5) 'natura rationalis'로 번역된 天命은 키케로가 말한 "(세계의 부분들에 들어가 있는) 감각과 이성"을 가리킨다.
- 6) 道는 키케로가 말하는 "(은 세계를 붙들고 있고 그것을 지키는) 본성"에 가깝다.
- 7) 공자를 묘사한 'Epiktetos'는 스토아를 대표하는 철학자이다.
- 8) '군자'(vir perfectus)는 키케로의 'perfectus'(이상적인 연설가, 이상적인 정치가) 개념에 가깝다.

인토르체타는 서양 고대철학자의 눈으로 『중용』을 독해하면서도 아리스토텔레스-아퀴나스 철학에 기초한 신학적 관점을 견지했다. 때문에 신성(神聖)과 관련된 『중용』의 주요 개념들이 스토아의 유물론으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었다. 인토르체타의 『중용』을 접한 서양의 독자들도 그의 눈으로 읽어냈고, 그들 역시 변용된 스토아학파나 키케로의 사유 구조 안에서 그것을 이해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안재원 교수는 서양 고대철학의 언어로 번역된 라틴어 『중용』이 유럽 계몽주의의 시대사조에 어떤 방식으로든 일조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그에 따르면 인토르체타와 쿠플레는 사서의 핵심이 '인간 본성에 대한 자각과 깨우침'에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인토르체타는 『중용』 첫 장에서 성(性)을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이성적 본성'(natura rationalis)으로 번역하고, 인간은 본성을 자각하는 훈련을 거쳐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해설했다. 이것이 바로 중국에서 말하는 군자로서, 키케로의 '이상적 인간' 개념으로는 모두 설명되지 않는 지점이었다.

인토르체타는 신학적 관점에서 이 본성은 신이 부여한 것이며 신적 예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세계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추론할 수 있는 이성 능력 역시 강조하며, 인간에게 스스로 깨우

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상적 인간인 군자가 최고의 지위를 얻었을 때 중국 고대의 성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상적 군주론을 제시한다.

인토르체타의 이상적 군자론 혹은 군주론은 라틴어 『중용』의 전래와 함께 유럽 지식인 사이에 유통되었고, 당대에 등장한 두 갈래의 사조를 일으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계몽군주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쿠플레가 『중국인 철학자 공자』를 루이 14세에게 헌정한 이유도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왕이 자신의 이성적 본성을 자각하고, 이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계몽군주로 변화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비록 루이 14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절대군주의 길을 선택했지만, 계몽군주론은 서양의 근대 계몽사상가들이 요구하는 군주의 이념형으로 자리를 잡아 갔다.

다른 하나는 계몽 정신의 진작을 통해 근대 시민 개념의 탄생에 일정한 공헌을 했다는 것이다. 『중용』 군자론의 핵심은 ‘늘 깨어있는 정신으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 인간이다. 군자는 ‘마음의 이성적 본성을 자각하고 이성의 힘으로 욕망을 제어하는’ 교육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중용』의 군자론을 실천철학으로 이해하고 그 아이디어를 진척시킨 서양 계몽사상가 중의 하나가 크리스티안 볼프(Christian Wolff, 1679-1754)이다. 볼프는 인간이 마음의 이성에 부합하려는 노력을 통해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욕망의 관할권을 교회가 아닌 욕망의 주체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초로 욕망 주체의 자각에 대한 면밀한 탐구 즉 도덕 심리와 윤리 심리를 자신의 학문 주제로 다루었다. 이 주제는 볼프 이후에 세속적 의미의 윤리학과 심리철학의 발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출간된 편역주 라틴어 『중용』은 비판 정보의 표준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필사본 6277을 복원하여 그것의 출판 경위와 목적을

새롭게 밝히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인토르체타와 서양 계몽사상가들이 서양 전통의 눈으로 『중용』을 독해한 방식을 소개하고, 그것이 유럽 계몽사상의 형성에 중요한 아이디어와 논리를 제공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다만 인토르체타의 사서 프로젝트가 서양 계몽사상의 형성에 기여한 한 가지 요인일 수 있다는 과감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알고리즘과 풍부한 근거들이 제시되어야 것이다. 해제의 수많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이 후속 연구를 통해 학계에 광범하게 통용되는 주장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